

생성색이라 함은 천연섬유가 지니고 있는

자연의 색상

생성이라고 함은 생지 상태이다. 생지는 직기상의 원단을 말하고 정련, 표백 등을 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면인 경우라면 면섬유가 원래 가지고 있는 색소라던가 네프, 짝지 등의 찌꺼기를 지닌 원단이다. 이것을 그레이(Grey Gray)라고도 한다. 이와 같은 상태의 원단을 그대로 옷감으로 보통 사용하지 않는다.

생성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생지의 색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다. 이러한 경우의 생성이라 함은 천연섬유가 지니고 있는 자연의 색상이다. 이것은 소재색이다. 따라서 이러한 색을 내추럴 컬러라고도 부르고 있다. 생성은 세탁을 반복할수록 정련 표백된 것에 유사하고 점점 하얗게 되어 간다. 세탁 회수가 거듭할수록 처음에 가지고 있던 원래의 거칠고 투박한 맛이 없어져 가는 것이다. 생성한 것의 맛을 오랫동안 즐기기 위해서는 표백제라던가 형광제 등이 들어있지 않는 세제를 사용하는 일이다. 하지만 표백제나 형광제가 없는 세제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세탁에 사용되는 물이다. 클로로칼키가 많이 들어 있는 수도물에 장시간 담귀두기도 하고 세탁 후에 곧바로 말리지 않고 방치하여 두어서는 안된다. 어쨌든 클로로칼키는 표백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물은 인간에게 생명 바로 그것이고 의생활에 있어서도 생명이다. 생성색을 에크루라던가 피셀(리닌의 생성색), 베이지(양모의 생성색) 등이라고 부르고 있다. 양의 백색, 련견 색 등의 표현도 소재색으로 생겨나고 있다. 면의 생성은 여름철 캐주얼 감각의 연출에 없어서는 안된다.